

OVERWATCH®

한 돌 한 돌



CHRISTIE GOLDEN 단편 소설

# 한 돌 한 돌



스토리

*CHRISTIE GOLDEN*

일러스트레이션

*NESSKAIN*

마람아트 시메트라 스킨  
& 기존 콘셉트

*ARNOLD TSANG*

마람아트 시메트라 스킨 모델

*DONALD PHAN*

시메트라 기존 모델

*RENAUD GALAND*

레이아웃 & 디자인

*MARK BRYNER*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 한 돌 한 돌

“혹시,” 산제이 코팔이 희망찬 목소리로 물었다. “때마침 지진이 난 건 아닐까?”

사티아 바스와니는 잠시 그것이 비유인가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비슈카르 코퍼레이션의 으뜸가는 협상가 중 하나인 산제이의 말은 문자 그대로였다.

“지진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수석 지질학자인 하리타 파텔이 말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착공한 거고요. 제가 경고했던 것 기억하시—”

“때마침 지진이 났을 수는 없을까?”

하리타는 한층 괴로워 보였다. “안타깝지만 인과 관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개발은 공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개발했죠. 집중적인 건설 활동으로 인한 진동이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모두, 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산제이가 한숨을 쉬었다. “우린 오랫동안 거기서 입지를 다지려 애쓰던 중이야. 리우 일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곤란하지.”

“우리”란 물론 비슈카르 코퍼레이션이었다. “그곳”이란 로샤니의 강 건너편 미개발 지역을 가리켰고 “불상사”란 사티아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말했다.

작은 홀로그램 영상이 테이블 위에 떠 있었다. 연꽃 위에 가부좌를 틀고 합장한 채 앉은 옴닉 석상을 보여 주던 영상이, 머리 없는 하반신을 둘러싼 돌 더미로 변했다.

“아, 그냥 불상사 정도가 아닙니다.” 홍보 담당자 타미르 차다가 말했다.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물리적인 손상만이 아니에요. 산제이 님 말이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완벽하게 고쳐 놓지 않으면 이 지역의 추가 개발은 물 건너갑니다.”

“다행히도,” 산제이가 사티아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비슈카르에는 세계 최고의 경화광 광축가가 있지. 사티아, 자네도 수라바사 같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그러니 당연히 자원하겠지?” 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고, 사티아도 알고 있었다. “자네를 빨리 투입하지 않으면—”

“즉시죠.” 타미르가 끼어들었다. “이미 늦었을지도요.”

“우린 이 기회를 잃게 된다. 수라바사에 뭔가 중요한 것을 주어야 해. 실수로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손상시켰으니 반성한다는 걸 보여 줘야겠지.”

*반성하지 않잖아요.* 말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비슈카르에 근무하며 이런 일에는 익숙해진다.

“지금 자네를 파견하지.” 산제이가 말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봐. 휴양 시설인지, 거액의 복구비인지. 사원을 직접 재건해 주는 것도 가능해. 비용이 얼마나 들든 개발권 상실에 비하면 새 발의 피야.”

“새 발의 피”와 개발이 “물 건너간다”는 것은, 젊은 시절 사티아가 자주 헛갈리던 표현이었다. 새도 없고, 피도 없고, 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녀도 배웠다... 그 표현이 뭐더라? “요령껏 해라.”

“이게 누구의 석상이었죠?” 사티아가 다시 홀로그램을 보며 물었다. 부러진 목과 잘린 머리. 그녀는 눈을 돌렸다. 무질서다.

“어...” 산제이가 타미르를 보았다.

“오로라입니다.” 타미르가 메모를 보며 말했다.

오로라. 지각력을 얻은 최초의 옴닉으로, 자신 외의 모든 옴닉에게 지각력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다. “오로라는 그냥 유명한 옴닉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티아가 말했다. “돈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 쪽에서 그보다 나은 걸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서 해결하는 게 자네 일이야, 사티아.” 산제이가 말했다. 그는 다정한 눈빛으로 예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네는 할 수 있어. 어떻게든 해 봐.”



“비슈카르 코퍼레이션과는 엮이고 싶지 않네.” 수라바사 지방 정부의 수장 격인 라네쉬 그레왈 사르판치가 말했다. “개발은 여기까지야.”

웬지는 몰라도 사티아의 임무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진 후였고, 그레왈은 험악한 표정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티아와 맞섰다. 산호색으로 페인트칠이 된 돌벽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침입자는 사원 입구 앞, 지반을 낮추어 체스판 무늬로 타일을 깐 안뜰에서 있었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햇볕에 사원의 금빛 돔이 눈부시게 번쩍여,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다. 그레왈의 얼굴은 분노로 주름져 있었고, 나머지 얼굴들도 마찬가지였다. 뒤쪽으로 옴닉도 몇몇 보였다. 그나마 그들은 그녀에게 소리를 치지 않았다.

“저는 그 일 때문에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사티아가 말했다.



“결국 뭘 하려고? 반짝이는 파란색 경화광으로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우리가 그걸 바랄 것 같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지 전 *모릅니다.*”

사티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연히 모르겠지!” 누가 외쳤다.

“비슈카르는 관심도 없잖아!” 또 누가 고함을 쳤다.

“저는 관심 있습니다.” 사티아가 말했다.

부서져서 머리가 없는 석상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사원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사르판치가 고민하는 동안 그녀는 덧붙였다. “여긴 누구나 환영받는 곳인 줄 알았는데요.”

뒤쪽에 있던 옴닉 중 하나인, 소박한 로브를 입은 옴닉이 사원 쪽으로 팔을 뻗었다. 목례로 감사를 표하고 나무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티아의 뒤통수에 성난 군중의 눈길이 따갑게 쫓겼다.

사원 안은 촛불로만 밝혀져 있었고 공기도 한결 차가웠다. 외부와 달리 벽은 산호색으로 채색되어 있지 않고, 물고기와 호랑이의 부조로 장식되어 있었다. 군데군데 지진에 흔들려 돌이 깨진 곳도 있고 벽과 천장, 석조물은 금으로 이리저리 얹어 있었다.

사원 전체에 희미한 냄새가 감돌았는데, 마치 돌 자체가 향기를 흡수한 듯했다. *향* 냄새군. 그 향기를 맡자 어린 시절에 그나마 좋았던 기억 하나가 살아났다. 가끔씩 평화로운 사원을 찾아가던 기억이. 워낙 드물어서 거의 잊고 있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당신이 모르는 것은 사실이요.” 금속성을 띤 것으로 보아 인간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분필이 칠판에 긁히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조였다. 옆에서 그녀와 걸음을 맞춘 옴닉은, 사원 입장을 허락해 주었던 그 옴닉이었다. “누군가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잘 알아야만 한다오.”

“이곳 사제신가요?” 사티아가 물었다.

“그저 순례자일 뿐이요. 나는 젠야타라 하오. 비슈카르가 책임을 지려 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요. 하지만 그 도움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요.”

“저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은 복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

“바란다면 그대가 우리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돕겠소. 우리과 함께 머물러도 좋소.”

“머무른다고요?” 대답은 사티아의 의도보다 거칠게 나왔다. “여기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경험했던 절망적인 빈곤의 기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악취,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리는 사람들, 굶주린 배, 탁한 식수.

그런 상황에도 속수무책인 부모님. “사원에서 말시오.” 젠야타가 말했다. “순례자들처럼.”

“전 순례자가 아닌데요.” 사티아가 말했다. “건축가죠.” 그녀는 일을 하러 온 것이었다. 이곳의 거주자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

젠야타는 금속 팔을 들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성지로 길을 떠난 사람이 순례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소?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도오. 사티아 바스와니, 이곳에 머물겠소?”

사티아는 이 초대에 심란해졌다. 그녀에게는 정해진 일과가 있었다. 인생의 특정 부분에만큼은 언제나 질서와 평온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티아는 호텔에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일과를 최대한 지켰다.

젠야타가 말을 이었다. “그대는 목적에 알맞게 건물을 설계한다는 평판이 있소. 이 사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만인은 무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

사티아는 그의 논리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녀도 오로라를 알긴 했지만, 옴닉이 아는 만큼은 아니었다. 산제이가 휴양 시설과 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이 초대를 거절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 노력해 보죠.” 사티아가 말했다.

“대업은 언제나 하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한다고요.” 젠야타가 말했다.

복도 끝에는 구부러진 길이 있었다.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워 쾌적했다. 한 옴닉 사제가 다가와서, 사티아에게 정중하게 목례하고 젠야타에게 절했다.

“평화가 깃들기를, 테카르타여.” 그가 인사를 건넌 후 가던 길을 갔다.

사티아는 젠야타를 보았다. “순례자시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이 책임자 같은데요.”

“그 누구도 무언가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는 나지막히 울리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나는 명상을 하며 나의 스승인 테카르타 몬다타의 가르침을 곱씹으려고 최근 이곳에 돌아왔소. 그러나 그대를 만났으니, 다른 목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요.”

“저도 몬다타를 알아요. 살해당했죠.” 사티아가 기억을 되살렸다.

“그렇소.” 젠야타가 그녀의 직설적인 표현은 개의치 않는 듯이 대답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옴닉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당신들은 기계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갈면 되겠거니 했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소. 하지만 영혼을 갈음할 부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소. 인간의 것이든... 옴닉의 것이든.”

옴닉에게 영혼이 있다고? 아주 심오한 질문이었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화제를 몬다타로 돌렸다. “몬다타는 암살당했죠.”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폭력 사태를 선동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몬다타 님은 폭력을 개탄하셨소. 나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그분은 인간과 옴닉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다리를...? 아.” 사티아가 대답했다. “다리라고 하니 말 그대로 그 다리가 떠올라서요.”

“나도 처음에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곤 했어요. 옴닉과 인간은 지각력이 있다는 면에서 같은데, 인간의 말은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소. ‘손을 빌려주다’, ‘말문이 막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말이에요. 인간의 손은 금속이 아니라 살인데, 어찌 빌려 준단 말인지? 말문은 또 어찌 막힌다는 말인가? 말에 문이 달려 있더라도 한 것인지? 그래서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사티아는 웃으며 털어놓았다. “저도 아직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젠야타는 반짝이는 머리를 바짝 기울이고 공모자처럼 속삭였다. “나도 마찬가지로요.”

구부러진 길 끝에는 계단이 있었고, 그 뒤에는 돔 모양의 넓은 공간이 있었다. 사원의 주 법당인 것이 확실했다.

석상이 올라앉은 받침대 가장자리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고, 석상까지 똑바로 길이 뻗어 있었다. 일부는 인간, 대부분은 옴닉인 순례자들이 석상과 같은 자세로 방석에 앉아 있었다. 아니, 이제 석상의 원래 자세라고 해야겠다.

사티아는 파편을 보며 기분이 뒤숭숭했다. 무균실에 가까울 만큼 깨끗한 비슈카르 코퍼레이션 이사회실에서 작은 홀로그램을 보는 것과 눈앞에 크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실물을 보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달랐다. 그녀는 산산조각이 난 팔을, 그리고 떨어진 머리를 보았다. 사티아는 비슈카르의 대응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청소가 끝나기도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괴로우시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의 신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면요.”

“오로라는 신이 아니었소.” 젠야타가 나지막이 바로잡았다. “우리와 같았소... 최초였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말이오.”

사티아는 석상의 파손 상태와 주위의 먼지가 아니라, 석상의 얼굴에 집중하려 애썼다. “오로라에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지 않소.” 젠야타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녀의 삶과... 죽음을 곱씹는다고. 그 희생과, 우리에게 준 선물에 감사하며. 석상은 그녀를 많이 닮았소. 하지만 본질을 표현하지는 못하오. 오로라는 호기심이 많았소. 늘 알고 싶어 했다고. 세상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말이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겠죠.” 사티아가 말했다.

젠야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중에 그 문제로 고심한 최초의 존재였다고. 우리는 아직도 때때로 고심하오. 옴닉은 모두 오로라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보는 것이라오.”

저도 그래요. 사티아는 생각을 말로 하지는 않았다. 자각을 하게 된 최초의 옴닉이라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 느닷없이 자기 인식이 생긴다는 건?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겠네요. 따를 만한 선례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사고방식, 당신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는 매우 다르겠죠.”

“누군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오.” 젠야타가 말했다. “친구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원은 오로라가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환영받고 받아들여진 곳이었소.”

“그런데... 이곳에 머물지는 않았군요.”

“그렇소.” 금속성 목소리가 슬프게 울렸고, 젠야타는 고개를 조금 떨어뜨렸다. “오로라에게는 다른 운명이, 다른 길이 있었다오. 그 후로도 많은 이가 따른 길이었소. 이 사원이 오로라를 따르는 순례의 첫 지점이라는 것을 아시오?”

“몰랐어요.”

“오로라는 한 곳을 거칠 때마다,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장했다고. 그 순례의 물리적 종착지는 네팔이었고, 영적 종착지는 순수한 이타심이었다오. 우리 또한 지각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 가지고도 자신을 희생할 정도의 이타심이었소.”



“잠깐만요...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사티아는 놀랐다.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은 언제나 고결한 것이었다. 확신 없이, 즉 실패하든 성공하든 자신은 세상에서 사라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길을 택했다면, 오로라는 사티아가 들은 이들 중에 가장 용감했다.

젠야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오. 오로라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었소... 그러면 옴닉이 지각력을 얻을 가능성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고, 이제 이 석상이 그대 회사의 개발 과정에서 파괴되었을 때, 우리가 왜 그토록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오?”

“비슈카르는 모두에게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해요.” 말이 빠르게, 자동으로 나왔다. “저는 주거 공간과 깨끗한 식수, 진료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끌어올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어요.” *호텔 휴양 시설. 독점 클럽.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만큼이나 비싼 아파트...*

“물론 그랬을 거라 생각하오.” 젠야타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소.”

“여러분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녀는 혹시나 해서 산제이가 언급했던 방안들을 읊었다. “휴양 시설을 지어 드리거나 아예 사원을 새로 건설해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손님을 환영한다오.” 젠야타의 시선은 사티아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석상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혼을 지닌 아름다운 것이, 성스러운 공간이 아닌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금껏 너무나 많이 보았소. 이곳에 오게 되어 있는 이들은 결국 온다오. 그리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한 돌 한 돌 길이 깔릴 것이고, 사원을 새로 건설한다라... 이 사원은 아직 괜찮소. 새것에 활기가 있다면 옛것에는 힘이 있소. 비록 부서지기 쉽다 해도

말이요, 사티아. 깊은 명상에 잠길 때면,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의 벽 안에서 나온 수많은 목소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듯하다오.”

*수많은 손이 사랑을 담아 준비한 향의 냄새를 맡아라.*

나지막한 종소리에 사티아의 생각이 끊겼다. “아.” 젠야타가 말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군. 그대의 머뭇거림을 시작하기에 딱 좋겠소.” 그는 고개를 기울이고 그녀의 표정을 정확하게 읽었다. “그대를 이곳에 머물게 한다는 내 해결책이 곤혹스럽다니 안타깝군. 우리는 정해진 일과에서 큰 위안과 목적 의식을 찾는다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한 사티아는 최대한 정중하게 덧붙였다. “나만의 일과에서 말이에요.”

“그대가 이 프로젝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려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소. 우리의 일과가 그대와 통할지도 모르겠소. 일과가 어렵지는 않소. 몸을 바쁘게 하여 마음과 정신을 채우는 일이라오. 하지만 우선은... 배부터 채우는 게 어떠시오?”

식당에 들어선 사티아는 멈칫했다. 타마린드와 강황, 쿠민, 카다멈 등의 향신료 냄새가 사원 전체에 감도는 향 냄새와 어우러져 추억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음식은 소박하지만 맛깔스러운 채식 식단이였다. 밥과 콩, 채소와 치즈, 우유. 물론 옴닉들은 먹지 못하지만 음식은 대단히 좋았다.

“맛을 못 보는데 어쩔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가 있죠?” 사티아가 젠야타에게 물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제들이 음식을 하며 간 보는 것을 금한다 하오. 그 대신 무슨 음식을 낼지, 어찌해야 그것을 가장 잘 만들지를 명상한다고 들었소. 알고 보니 우리가 그 전통을 받아들인 셈이었다오. 옴닉 사제들은 현지 식재료를 연구해서 각각의 재료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을 파악한다오. 또 재료 사용에 관한 가르침을 구하기도 하오.”

“그런 거라면 솔직히 맛이 끔찍하지 않은 게 놀랄 정도인데요.”

“우리 첫 손님들도 그랬소.” 젠야타가 껄껄 웃었다. 그녀는 그 웃음이 좋았다. 그가 자신에게, 세상사의 부조리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당신들의 믿음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대가 이제 알다시피, 오로라는 세상을 알고 세상 속의 자기 자리를 알고 싶어 했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요.”

“깨달음의 추구를 핵심 교리로 삼는 종교가 워낙 많죠.” 사티아가 말했다.

“그런 여정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다오. 오로라는 자신을 희생했을 때, 이 생과 이런 존재의 상을 초월했소. 우리는 명상을 통해 그 경험을 따르고자 한다오.”

“오로라는 어떻게 됐나요?”

젠야타는 잠시 주저했다. “그때의 일을 목격한 것은 당시 오로라와 함께 있던 몇몇 이들뿐이었고, 당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수께끼는 깊어지지만 했소. 찬란한 금빛 광채에 휩싸여, 커지고 또 커졌다고 하오. 우리는 그곳, 그런 존재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눈동자라 부르오.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요.”

“너무 혼란스럽네요. 더 이해하고 싶어요.”

“더 이해하게 될 것이오. 식사를 마치면 더 알려 주겠소.”

사티아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젠야타는 사원의 다른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하늘거리는 촛불들이 오로라가 초월에 이르는 순간을 표현한 부조를 밝히고 있었다.

사티아는 부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부서지기 전의 석상과 달리 부조에 나타난 형상은 팔이 여덟 개였다. 두 손은 심장 위에 대고 있었는데, 이는 여러 문화권에서 자신과 우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상징하는 몸짓이었다. 나머지 손은 모두 조그만 구슬들을 향해 뻗어 있었다. 이 형상 뒤에는 훨씬 커다란 구슬이 있었다. 사티아는 호기심이 들어, 차고 거친 돌 표면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그때 젠야타가 바짝 몸을 기울이더니 오로라의 형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나에서, 여럿이.” 그는 팔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며, 그보다 훨씬 크다오. 하지만 동시에... 여럿도...” 그는 손가락을 다시 얹은 형상으로 가져갔다. “하나가 될 수 있소.”

“당신들은 눈동자 안에서 모두 하나인 거군요.” 사티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그것이오.”



그곳에서 나온 사티아는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 중 하나로 안내받았다. 건물은 벽이 트여 있었고, 연꽃으로 덮인 넓은 웅덩이 옆에 있었다. 그곳에서 사티아는 소박한 요와 단정하게 개킨 사원 로브를 받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미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이라도 일과를 통제하고 싶었다. 물론 사원의 전통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모습까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내키지가 않았다. 게다가 젠야타에게는 이미 자신은 순례자가 아니라고 말해 두었다.

하지만 로브의 황금색과 적갈색은 마음에 들었고, 질감도 기분 좋았다. 사티아는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젠야타는 사원에서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법당에 들어서는 사티아를 따스하게 맞이했다. “로브를 입어 주다니 기쁘오.” 젠야타가 말했다.

“입고 싶진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돕고 싶다는 제 진심을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았죠.”

“아아.” 젠야타가 말했다. “그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소.”

그날 하루의 일과는 처음엔 사티아에게 힘겹게 느껴졌다. 사티아와 순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사제들과 함께 주 법당의 조그만 돌 파편을 줍고 바닥을 쓸었다. 크고 무거운 파편들은 며칠 후에 일꾼들이 와서 치울 거라고 했다.

나머지 돌 조각은 물로 씻고, 바닥에 꽃잎을 뿌렸다. 그런 후 순례자들은 아침 끼니를 먹고 방석에 앉았다. 사티아는 처음에 그들을 따라 하면서, 사제들이 명상을 하라고 하겠거니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에 명상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사티아는 그들이 순례자에게 손바닥에 썩 들어가는 크기의 금속 구슬을 하나씩 주었을 때 놀랐다.

“우리가 명상할 때 사용하는 구슬이러오.” 젠야타가 말해 주었다.

“부조에서 보았던 그 구슬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에게는... 인식의 구슬이 맞을 것 같소.”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음.” 그는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구슬을 손에서 손으로 옮기면서 그 무게와 촉감, 움직임에 정신을 집중해 보시오.”

곧 점심 식사가 준비됐고, 잡일을 더 하고 구슬을 만지며 명상을 더 한 후 마침내 취침 시간이 되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사티아는 어느새 자신의 신체가 돌바닥에 깔린 얇은 요에 적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브 역시 편안해지고 익숙해졌으며, 부드러운 촉감도 마음에 들었다. 괜한 불안감에 자세를 바꾸고 싶거나 손을 쓰고 싶을 때면 구슬을 이리저리 굴렸다. 그녀는 유난히 식욕이 돋는 것이 의아하여 젠야타에게 물어보았다.

“식욕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러오.” 그가 대답했다. “의식과 구슬을 사용하는 명상, 사원의 일에 집중하고 있듯이 말이오.” 그는 껄껄 웃었다. “우리의 대화에도 그렇고.”

넷째 날, 사티아는 사제들을 따라 마을 중앙으로 가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만들었다. 사티아는 렌틸콩을 국자로 떠서 향긋한 밥 위에 올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젠야타와 옴닉들을 관찰했다. 모두 사제들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듯했다. 사원과 노동자와

“ 우리 모두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며,  
그보다 훨씬 크다오. ”

친구들, 사제들의 근황에 대한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사티아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 사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소리를 들은 젠야타가 사티아 곁에 와서 섰다. 그러고 아무 말도 없이 주걱을 집어 그녀 옆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런 반응에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다. 다만 젠야타의 말 없는 응원이 고마웠다.

그날의 저녁 명상이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떠난 후, 젠야타는 사티아에게 남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방석 위에서 불편한 듯 꿈지럭거렸다. 엉망으로 부서진 석상의 잔해를 볼 때마다 어떻게든 손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 일은 즐거웠소?” 젠야타가 물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충격이었지만요.” 그녀는 다시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젠야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뿔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소? 식사를 하는 중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서로 나누고, 함께 웃고요.” 걱정할 것이 너무 많았다. 분개할 것도, 화낼 것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었다.

“우리는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나눠 준다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도 않고, 우리의 신념을 공유하지도 않소. 그래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연결되니까.” 그는 석상을 가리켰다. “우리는 오래전 오로라가 이곳에 들른 후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소.”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죠.” 사티아가 말했다. 손가락으로는 인식의 구슬을 반대쪽 손으로 옮기며, 흘러가는 생각을 따라잡으려 했다. “음식을 준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고요.”

“굶주린 자들을 달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사티아.”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녀는 현실적으로 말했다.

“물론이오.” 그가 맞장구를 쳤다. “신체를 가꾸면 정신이 자유로워지고, 열린다고. 변화하고 배울 준비가 되면서.”

사티아는 손안에 매끄럽게 느껴지는 구슬을 내려다보았다. “경화광 광축가들... 우리는 느낌을 모아 실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대단히 정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이죠. 그건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전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구슬이 손에서 손으로 굴렀다. “그런데 전 일을 할 때는... 카타크 춤의 동작을 활용해요.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춤을 추면 좀 가라앉았죠.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명상을 하니까,” 그녀는 구슬을 가리켰다. “마음이 가라앉네요.”

사티아는 젠야타의 시선을 피했다. 자기 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실은,” 그녀가 바로잡았다. “춤 동작 중에 기억나는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 동작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어찌 됐든 그대는 춤을 춤으로써 빛을 엮는 거라고.” 젠야타가 말했다. “사티아, 그대는 현실을 왜곡하여 목적이 있는 예술품을 만드는 거요. 완벽한 예술은 무미건조하다요. 진정한 예술은 진정한 것들이 모두 그러하듯... 결함이 있으며, 바로 그 결함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들처럼 말이요.”

그의 금속성 목소리는 온기를 띠고 있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적 철학이 있소. 간단히 말하면 불완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라요. 자연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예술도 완벽할 수는 없소. 심지어 이런 철학을 담은 예술의 형태도 있다요. 긴츠기라는 것인데, ‘금으로 잇다’라는 뜻이요. 깨진 도기의 파편들을 한데 모아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법이라 들었소.” 젠야타는 그녀에게 눈을 돌렸다.

“긴츠기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요. 부서진 것을 숨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이요. 그대가 행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건축물을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이라요. 흠결이 없다면 집도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뿐. 결함과 행복이 그것을 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대의 춤은 불완전할지 몰라도, 상상력과 창의력 같은 것들은 신념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신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소. 사실, 이 우주라는 존재 자체가... 춤으로 인해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소.”

비슈카르 코퍼레이션의 선택을 받아 경화광 광축가가 되는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사티아는 너무 어려서 신념과 종교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일찍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으로 아름다우면서...” 젠야타는 경건함이 어려 있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다행이요, 사티아. 그대가 여기로 와서 성지의 치유를 돕다니. 정말 다행이요. 그대는 이미 신성함과 닿아 있소.”

사티아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너무나도 나약하며, 또 너무나도 강인했다. 그녀는 소리치고, 웃고, 춤추고, 울고, 노래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참으려 두 눈을 감빳이고는 젠야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부서진 석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인식의 구슬이 그녀의 손을 따라 흘렀다. 이제 그녀는 젠야타가 왜 이 구슬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인식은 이해를 의미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각을

통한 이해였다. 구슬의 매끄러운 감촉. 향의 냄새. 정성껏 차린 음식의 맛. 부드러운 음성의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모습.

“이제,” 그녀는 마지막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우리?”

“네. 함께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자신이 웃고 있음을 깨달았다.



머무는 동안 깨어 있는 시간은 온전히 거기 쏟아야 했지만, 사티아는 산제이가 “장막을 걷는다”라고 표현하는 일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 진짜로 장막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티아는 행사 때 입을 옷을 고르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입고 왔던 보라색과 하얀색 회사 유니폼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뜻 손을 멈추고는, 대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입고 있었던 황금색과 적갈색 로브를 바라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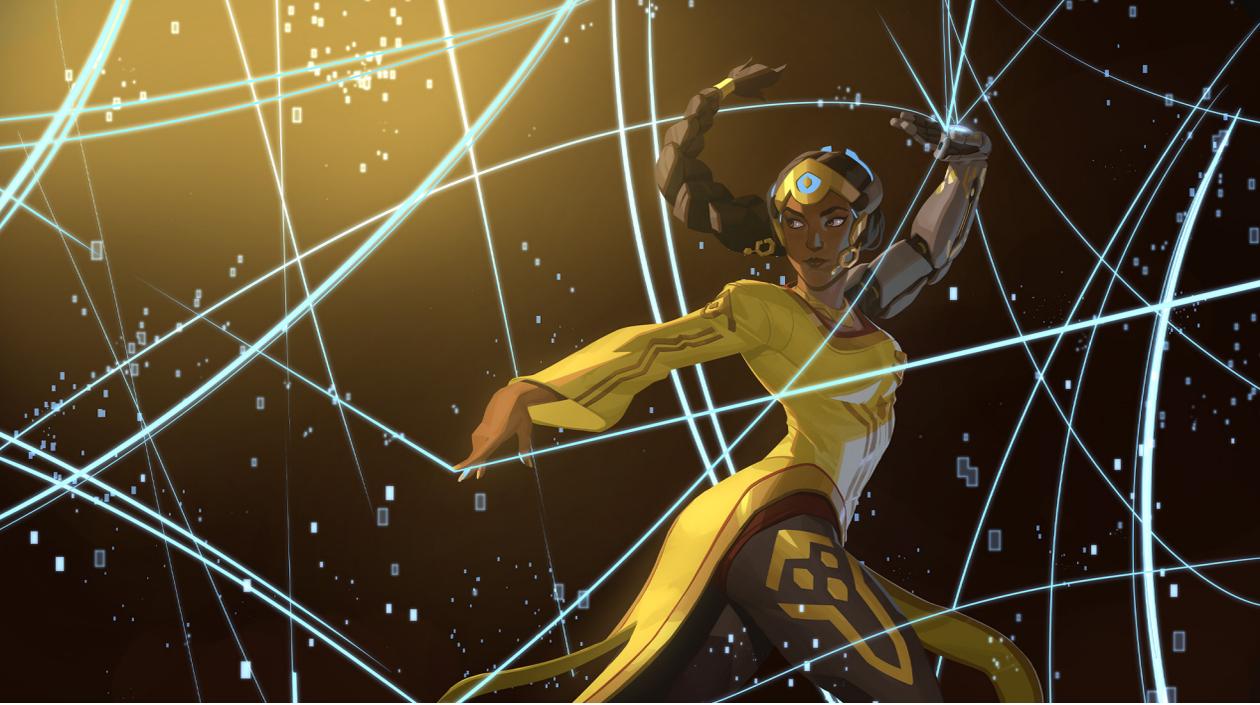
젠야타는 안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티아가 나타났을 때, 그는 깜짝 놀란 듯 보였다.

“그런데... 그대는 순례자가 아니지 않소.” 젠야타가 그녀가 입을 사원 로브를 보며 말했다.

“성지로 길을 떠난 사람이 순례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사티아는 젠야타가 한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처음엔 하나가 될 뜻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사람은,” 그녀는 로브를 가리켰다. “오로라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에요. 제 작품을 온 세상에 선보일 때, 저는 그 사람이고 싶어요.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 사람으로 살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이 세상에는 신성한 것이 아주 많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언뜻 보기에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것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법이죠. 특히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사티아는 옴닉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 미미한 변화를 읽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느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젠야타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을 분명히 느꼈다.

사티아와 젠야타는 지금 라네쉬 그레왈 사르판치가 일주일 전 그녀를 책망했던 바로 그 안뜰에 함께 서 있었다. 사르판치도 지금 사원의 사제들과 순례자, 마을 주민, 그 외의 사람들과 함께 안뜰에 나와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는 시선에는 아직 신뢰가 없었다.



“그렇다면,”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휴양 시설은 필요 없겠지.” 사티아가 목소리를 향해 돌아섰다. 놀랍게도, 산제이가 행사에 참석해 있었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그녀는 말했다.

산제이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홍보팀의 타미르가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됐든, 무엇에든 문제가 생길 거다. 늘 그렇다는 거 알고 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사티아는 걱정하지 않았다. “제가 충분히 연구해 봤어요. 선택한 설계에 자신이 있다고요.” 그녀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따라오세요.”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이끌고 복도를 통과했다. 한때 여기저기 금이 가 갈라지고 구멍이 숭숭 뚫렸던 벽과 천장이 황금빛 줄무늬로 가득 찬 것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라진 조각, 균열, 틈, 상처 입은 곳들. 모두 복원되어 별꽃색 빛으로 접합되어 있었다. 숨기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난 모습으로.

*긴츠기. 금으로 있다.*

*새것에는 활기가 있지만 옛것에는 힘이 있다.*

*혈관을 흐르는 피. 전류. 사물을 한데 묶는 힘줄.*

사람들은 침묵에 잠긴 채 계단 입구를 향해 걸었다. 사티아는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비슈카르 코퍼레이션은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 사원에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테카르타 젠야타가 저를 여기로 초대하고, 옴닉의 역사와 신념에 관해 가르쳐 주었어요. 오로라에 관해서도요. 제가 사원 자체를 어떻게 보살피려 했는지는 다들 보셨겠죠. 이제 제가 옴닉과 수라바사의 사람들, 오로라, 그리고 그 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몬다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술을.*

*그리고... 나를.*

*눈동자 안에서 우린 하나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들과 하나였다. 오로라 석상은 오직 그녀의 힘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었다. 사티아는 커다란 돌덩어리들을 치우려 온 일꾼들을 잘 설득해서 돌을 다시 짜맞추는 과정을 돕게 했다. 일꾼들과 사제들, 순례자들까지 모두 그녀 곁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그녀의 경화광이 부서진 것을 고쳐 나갔다.

그렇게, 석상은 교체되지 않았다. 변형되었다.

햇살이 매끄러운 황금빛으로 석상을 감쌌다. 비슈카르의 과실로 떨어져 내렸던 거대한 조각들이 금색 빛의 개울을 따라 하나로 통합되었다. 금으로 보이는 목걸이가 고개 숙인 머리와 목을 연결하고 있었다. 경화광이 한때 갈라졌던 옷의 주름을 우아하게 감싸고, 기도하는 몸짓으로 함께 맞댄 손가락들을 서로 엮어 주었다.

사티아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눈동자의 관념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오로라의 초월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 더 깊은 곳을 어루만졌다. 이곳에서 사티아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두 팔을 들고 몸을 바로 세운 후 손을 내젓기 시작했다.

텅 빈 곳을 향해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느끼고, 붙잡고, 끌어당겼다.

*구슬을 앞뒤로, 다시 앞뒤로.*

*인식을 옮기며.*

손가락 사이에 얽힌 가느다란 황금색 빛줄기를 길게 잡아 늘리고, 빛을 발하는 실을 공 모양으로 둥글게 뭉치면서, 사티아는 오로라가 느꼈을 경외감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최초의 옴닉으로서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남들을 위해 희생하게끔 했던 그 막대한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사티아도 자신의 기술과 열정을 희생하여 창조자의 춤을 추었다.

그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덟 개의 작은 구슬이 나타났다. 서로 맞댄 가느다란 팔 하나에 하나씩, 그리고 석상의 머리 위 좌우에 하나씩이었다. 한 쌍의 팔이 아래로 내려왔다. *다른 이들을*

고양하기 위해. 중앙의 팔들이 좌우로 넓게 벌어졌다. 구도자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팔 두 개는 머리 위에서 손바닥을 맞붙여, 심장 위에 맞댄 두 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통합.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주 가느다란 실에 빛을 엮어 석상 주위를 휘둘렀다. 실은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늘어서 석상의 육중한 받침 아래로도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실이 불타오르며 생겨난 불의 고리가 커다란 광휘의 구슬이 되어 석상을 둘러쌌다. 사티아가 두 손을 들어올렸다. 제단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거친 숨을 들이쉬는 가운데, 무거운 석상이 반투명한 황금색 경화광 구체와 함께 연꽃 받침에서 두둥실 떠올랐다.

사티아는 한숨을 내쉬며 팔을 내렸다.

완전한 침묵이... 잠시 후 두런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천천히, 사람들은 경화광의 구체에 둘러싸여 공중에 떠 있는 석상에 다가갔다. 위를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이 환한 빛에 잠겨 있었다.

“바스와니 씨?” 그녀는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레왈 사르판치가 미소를 띠고 곁에서 있었다.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를 잘못 생각했어.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네.”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사티아가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고요.”

그레왈은 생각에 잠긴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젠야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우리를 기억할 물건이요.” 향기가 피어올랐다. 향 냄새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여기에서는 언제나 그대를 환영하겠소.” 젠야타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오는 산제이를 향해 말했다. “새벽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겐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오. 비슈카르 코퍼레이션도 이제는 그걸 깨달았기를 바라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한 후, 그대로 돌아서 안뜰로 향했다.

산제이의 시선이 그를 뒤따랐다. “자네가 선택한 건,” 산제이가 사티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군.”

“실망하셨나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화가 난 건 아닌 듯했다. 조금... 당황한 걸까? “사실 그렇지 않아. 난 분명 저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라고 했고... 자네는 그렇게 해냈지. 정말 아름답군, 사티아. 꼭 맞아. 그런데, 왜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빛을 선택했지?”

“그게 제가 들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대꾸했다. “그리고... 파란색은 아름답지만 차가운 색이에요. 이곳은 자기희생이라는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따뜻하죠.”

어느새 사람들은 사티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산제이도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든 것 같군. 나중에 이곳이 그리워질까?”

“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그리워질 것 같아요.” 사티아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는 이 사원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남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한 돌 한 돌 길이 깔리다오.*

그녀는 돌아서서 산제이를 바라봤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환영받는 친구로서.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여기서 비슈카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먼저 그 방식을 인식해야 하겠죠.”

산제이는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반짝이는 석상을 바라봤다. 예전의 모습과 꼭 같으면서도, 어딘지 너무나 다르기도 했다.

“어쩌면,” 산제이 코팔은 조금 놀라기라도 한 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이 맞는지도 몰라.”







**BILZARD**<sup>®</sup>  
ENTERTAINMENT

©2020 Blizzard Entertainment, Inc.  
여기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